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여가생활만족도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Leisure Programs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of the Institutional Elderly in Seoul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학전공

강사 이 유 리

교수 박 미 석

Major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 : Lee, Yu-Ri

Professor : Park, Mee-Sok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tivation of the institutional elderly to participate in the leisure programs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their leisure life satisfaction. A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65 elderly in an institution for the elderl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eisure programs on the part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tended to be more external than internal. Second,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ain internal factors that affected participation were health condition, interaction with roommate, gender, education level, and interaction with institution's staff. The major external factors that affected the participation were health condition, interaction with colleagues, gender, and education level. Finally,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ain internal factors that affected the leisure life satisfaction were, intrinsic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eisure programs, interaction with their roommate, gender, and education level.

▲주요어(Key Words) : 무료양로시설(public institution for the elderly),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leisure programs participation motivation), 내적동기(internal motivation), 외적동기(external motivation), 여가생활만족도(leisure life satisfaction)

1. 서 론

한국사회는 현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서 머지않아 2019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01).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년기는 더욱 연

장되었으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 자녀세대의 부양 부담의 증가, 효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단독가구, 시설입소 노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시설입소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노인 주거시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정적 기능을 제공하는 공공가정기

\* 주 저 자 : 이유리 (E-mail : yurieye@sookmyung.ac.kr)

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갈 곳이 없어서 입소하는 무료시설차원에서 하나의 선택으로서 자발적으로 노인 주거시설을 찾는 고가의 노인 공동주거시설로까지 공공가정기관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최근 무료 양로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를 클라이언트로 보는 것에서 소비자로서 보는 인식의 전환, 최저생활보장에서 최적생활보장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입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평가를 해오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사회의 복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최소한도의 욕구충족에 기능하는 공공가정보다 삶의 질 향상에 기능하는 공공가정의 서비스가 지향되며 그 비율도 더욱 높아지리라고 예측된다(문숙재, 송혜림, 김선희, 이기영, 김난도, 김순미, 박미석, 조희금, 1999).

그런데 자녀나 가족의 원조 및 접촉이 거의 단절되거나 무연고인 무료양로시설의 노인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시설내에서 지내기 때문에 시설내 각종 설비와 서비스의 정도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현대 노인들의 중대한 문제는 생활의 대부분인 여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있게 보내는가이며, 노년기의 여가생활은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더욱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박미석, 2002; 한혜원, 2000; 홍성희, 1998). 따라서 무료양로시설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무료양로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은 아직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거주노인의 삶의 질 증진과 시설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시설은 시설과 서비스가 열악한 무료시설기관과 일부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유료시설기관으로 양극단에 치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양로시설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는 노인들이 어떠한 의도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생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여가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했느냐보다는 실제 어떤 동기로 참여했느냐하는 것이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를 더 설명해 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내적 동기에 의한 여가프로그램참여는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적 동기는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Connor, Vallerand, & Hamel, 1992; Vallerand & O'Connor, 1989).

이에 본 연구자는 무료양로시설의 여가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거주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와 여가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 동시에 이들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는 내적동기

와 외적동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며,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료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와 외적동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서울시 관할의 5개 무료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전수(全數)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심부인 서울시의 무료양로시설에 대한 결과를 통해 시설의 여가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가정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무료양로시설의 여가프로그램 운영실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일반노인들이 생활하는 흔히 양로원이라고 불리는 시설로서 수입이 없거나 낮은 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설, 중간단계인 실비양로시설, 경제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을 위한 유료양로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전국에 85개의 무료양로시설과 5개의 실비양로시설, 29개의 유료양로시설과 6개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고되어 있다. 이 중 서울시에 신고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6개의 무료양로시설과 1개의 유료양로시설의 총 7개이다(보건복지부, 2004). 전국적으로 무료양로시설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에는 약 88%로 무료양로시설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한편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하루 24시간 중 생리적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여가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노후생활문제는 곧 여가선용의 문제라고 할 만큼 노년기 여가생활은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다(박미석, 2002). 특히 무료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재가노인보다 옥내 생활시간이 더 길며 대부분 외부와의 접촉이 적다. 따라서 시설거주노인들의 시설내 여가생활의 내용과 질은 그들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이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평가제 도입으로 노인주거시설에도 시설 입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도로 규정하여 의무화하였으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실제 선행연구결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여가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기초적 조사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몇몇 무료양로시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양로시설의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무료양로시설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여가프로그램 관

련조사를 위한 초석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미흡하나마 현재까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대상의 여가프로그램은 아직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여가 프로그램보다는 단순히 1회성의 '행사'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수병(1992)은 전국 시군부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양로시설을 조사하였는데, 양로시설 총 17개 중 10개 시설이 아무런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양로시설도 종교신앙활동, 각종 행사 참여, 한글교실, 비디오시청 등의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무료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순자(1996)의 연구에 의하면 오락, 야유회, 행사참석, 국민체조 등의 매우 기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채대봉(1990)은 경북지역의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종교활동, 공동작업, 소풍, 비디오시청 등의 단순한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전주·목포·포항지역의 양로시설에서도 물리치료서비스, 한글교실 이외에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인선, 최일립, 조유향, 차경미, 최영희, 1997).

한편 최근에 여가프로그램을 건강·종교·취미·오락·운동·기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11개의 무료양로시설을 조사한 장순자(2001)의 연구에서는 조사시설의 약 91%가 체조 등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배 등의 종교프로그램과 종이접기 등의 취미프로그램은 약 82%, 노래교실 등의 오락프로그램은 약 73%, 게이트볼 등의 운동프로그램은 약 55%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곽권근(2002)의 연구에서는 서예·노래교실·댄스·독서·음악감상·교양강좌·스포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참여도는 약 20~40%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무료시설내 여가프로그램은 아직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더라도 입소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노인주거시설 평가제가 도입되기 전인 90년대에 무료양로시설들은 시설보호차원에서 의·식·주 해결에만 주력하여 여가프로그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99년 노인복지시설 평가들이 개발되어 2000년부터 노인주거시설 대상의 평가가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시설에 여가프로그램이 구성되고 다양화가 시도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서울시 관할의 무료양로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 2.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

여가참여동기는 여가경험에 앞서서 개인이 어떤 여가활동을 선호하고 선택하여 참여하게 되는 의식적·무의식적인 이유를

의미한다.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자극이 필요한데, 여가참여동기의 지각은 여러 가지로 복합된 자극의 결과로서 이 단계는 참여자가 내적 동기(심리적·지적·신체적 요인), 외적 동기(신분적·준거집단적 요인)에 의해 활동이 자극되며, 시간적·경제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여가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이다(박용란, 2000).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이론으로 동기이론을 설명하면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매우 자율적이고 자기결정적이며,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이고 인생에 활력과 즐거움의 원천을 제공하고 끊임없는 흥미, 탐색에 대한 자연적인 경향이다. 이것은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선천적 및 심리적 욕구를 지지 또는 방해하는 것에 의해서 촉진되거나 방해될 수 있다. 반면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내적 동기와 대조되는 것으로 자율적이거나 자기결정적이지 못하며 외부적 자극에 의해 또는 그 자체보다는 다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Deci & Ryan, 1985).

한편 여가참여동기는 여가학 연구에서 핵심적인 관심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여가참여동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며 여가참여의 결과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들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인에게 주는 혜택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현장실무자들을 도울 수 있다(Manfredo, Driver, & Tarrant, 1996). 노인이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보다는 '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했느냐'가 그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를 더 설명해 줄 수 있다. 즉 어떤 노인은 본인이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것이고, 어떤 노인은 할 일이 없어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두 노인이 느끼는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Neulinger(1981)도 여가경험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각된 자유와 내재적 동기들 정도로 여가에 있어서 여가참여동기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참여동기에 관한 국내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무료양로시설 거주노인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다만 실태조사 수준으로 여가프로그램 참여이유를 조사한 장순자(2001)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건강에도 좋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배우는 게 있어서', '무료하고 심심해서', '재미있고 성취감을 느껴서', '시설직원이 권해서', '다른 사람들도 참여해서'의 이유 순으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참여동기 척도도 외국의 Beard & Ragheb(1983)이 개발한 48문항을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여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연령대에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Beard & Ragheb(1983)이 최초로 개발한 여가동기척도(LMS: Leisure Motivation Scale)는 지적 동기, 사회적 동기, 효능적 동기, 휴식적 동기 등의 4개 하위영역 총 48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너무 많고 세밀하여 노인이 이를 구분하여 응답하기 힘들며, 여가활동유형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문항들이 많아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를 측정해내는 데에 부적절하다.

이에 Vallerand와 O'Connor(1989)는 노인대상의 여가참여동기 척도(MES: Motivation in the Elderly Scale)를 개발하였다. 이는 여가참여동기를 내적-외적 동기로 구분하여 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즐거워서, 나에게 도움을 주므로, 주위에서 하기를 바라므로, 별 이유없이 등으로 노인들이 응답하기 쉽게 단순화하여 측정한다(O'Connor & Vallerand,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S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Losier, Bourque, & Vallerand, 1993; O'Connor 등, 1990)를 기반으로 무료양로시설 노인들이 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측정을 위한 문항을 구성하고자 한다.

한편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참여동기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여가참여동기는 여가생활만족 및 생활만족도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Sneegas, 1986; 김경식, 1996; 이성철, 1996; 신갑호, 문용, 1999 등). 구체적으로 내적 - 외적 여가참여동기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해 연구한 O'Connor 등(1992) 그리고 Vallerand 등(1989)에 의하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감과 생활만족도에 여가참여의 내적 동기는 정적 영향을 미치며, 외적 동기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결정성이 높은 내적 동기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osier 등, 1993). 또한 여가참여동기를 적극적인 집단과 소극적(문항 : 생활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여가생활만족도 차이를 비교검정한 원형중(1994)에 따르면 여가참여동기가 적극적인 집단이 유의미하게 여가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배경변인에 따른 여가참여동기를 살펴본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은 여가참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김성희, 이철원(2003)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한 유능감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은 20대가 30~40대보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참여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원형중, 1998).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는 노인들이 무료양로시설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선택하여 참여하는 이유로,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내적 동기와 준거집단적이고 자기결정적이지 못한 외적 동기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에 대한 연구는 여가프로그램 이용자와 개발운영자 모두에게 유용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를 파악하고 아울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도

살펴보고자 한다.

### 3. 여가생활만족도

여가만족이란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 유도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으로(Beard & Ragheb, 1980), 여가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여가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의미한다. Ragheb과 Griffith(1982)는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통해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즉 삶의 총체적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요소는 양적인 여가시간이나 여가활동참여빈도가 아닌 바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임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어떤 여가활동을 통해 어떻게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여가생활만족,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여가선용이나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들은 노인의 여가활동 추구가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인이라고 일치하고는 있으나 여가활동 자체보다는 그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여가의 본질적 기능이 발휘된다고 보고 있다(Campbell, Convers, & Rodgers, 1976; 박미석, 2002; 한혜원, 2000; 홍성희, 1998).

한편 국내외의 선행연구고찰결과,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으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위주로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상덕(2002)의 연구에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여가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숙자(2001)의 연구에서는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연령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연령이 여가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김성연, 박미석, 2000; 이숙자, 2001)에 대해서 김성연, 박미석(2000)은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수준이나 욕구수준의 조정으로 익숙해지고 적응된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Cutler(1979)의 연구에서는 종교나 사회적 모임활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증가하지만 건강관련, 취미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였으며, 시설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운동여가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조현영, 1994).

여가생활만족도에 대한 학력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숙자(2001)와 홍성희(1998)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는 낮았으나, 한상덕(2002)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김명자(1982)는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은 삶에 대해 좀 더 긍

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 종교가 있는 노인이 소외감을 적게 느끼고 생활만족도도 높다고 하였다.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이은주(2002)의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인 노인이 무교인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노인의 생활만족도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김종숙, 1987; 이은주 2002; 장숙아, 1997), 시설노인의 건강상태는 여가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현영, 1994). 또한 입소기간은 시설생활에 적응과 관련되어 입소기간이 길수록 여가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현영, 1994).

한편 시설동료 및 직원과의 관계가 여가활동이나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재가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가족관계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해 이를 유추해볼 수 있다. 홍성희(1998)는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및 이를 통한 가족의 지원은 노인의 여가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원형중(1994)에 의하면 가족관계만족도는 노인의 여가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또한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대인관계라고 하였다(장숙아, 1997). 따라서 하나의 공공가정기관인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함께 생활하는 시설내 동료노인이나 직원들과의 관계정도는 그들의 여가동기 및 여가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전국의 무료양로시설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기에는 시간, 예산, 그리고 지리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대한 기존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전국대상의 연구를 위한 초석적인 결과제시를 위해 서울시 무료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신고된 총 6개의 무료양로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서울시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의 협조하에 무료양로시설에 설문조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6개의 시설 모두 설문조사에 협조할 것을 알려와 이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개소는 13명 인원의 명목상 양로시설이고 실질적으로는 노인들을 간병하는 요양시설의 기능을 하면서 여가프로그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5개의 무료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여가프로그램에 한 가지 이상 참여하고 있는 노인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6월 13일 ~ 7월 20일이며, 예비조사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15명을 대상으로 일대

일 심층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완성하였으며, 이후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노인 1명당 약 1시간이 소요되었다.

2.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시설입소기간을 각각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시설내에서 항상 직·간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같은 방을 사용하는 노인들이나 다른 방의 노인들, 시설직원들과의 관계정도를 각각 살펴보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로 그들과의 주관적 친밀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2개씩 총 6문항을 구성하였다.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는 노인들이 무료양로시설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이유로, 크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각각 5점 리커트 척도의 3개 문항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Losier 등(1993)과 O'Connor 등(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노인대상의 여가참여동기 척도(MES: Motivation in the Elderly Scale)를 무료양로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작성한 척도문항을 예비조사를 통해 2차적으로 수정완성한 척도이다. 이에 본 연구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척도가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의 척도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1 참조).

<표 1>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 요인분석

n=265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b>제 1 요인 : 내적동기</b>		
5. 재미있으니까	.872	-.205
6. 보람이 있어서	.815	-.308
4.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795	6.176E-03
<b>제 2 요인 : 외적동기</b>		
1. 잠נם을 없애기 위해서	-.153	.894
2.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223	.869
3. 단체활동이니까	-5.066E-02	.501
<b>고유치</b>	<b>2.825</b>	<b>1.251</b>
<b>요인설명량(분산율)</b>	<b>47.083</b>	<b>20.848</b>

여가생활만족도는 Beard와 Ragheb(1980)이 개발한 총 24개 문항의 여가만족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 LSS)와 김성연, 박미석(2000)의 여가생활만족척도를 기초로 1차적으로 4점 리커트 척도의 10개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2차적으로 수정하여 8개의 문항을 완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여가생활만족도는 여가생활시간이나 회수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을 위한 용돈에 대한 만족, 장소나 시설에 대한 만족,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동료에 대한 만족, 여가활동 자체에 대한 만족을 묻는 3문항과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을 묻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본 연구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여자노인이 약 68%로 남자노인에 비해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80.3세로 80세 이상 노인이 55%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양로시설 거주 노인은 70대 중반 이후와 여자노인이 대부분이라는 이인수, 이용환, 광강욱(2000)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단지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시설입소 노인의 평균연령도 2000년도 보다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은 무학인 노인이 약 37%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상의 노인은 약 16%로 전반적으로 학력은 낮게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65

변인	구분	n(%)
성별	남	84(31.7)
	여	181(68.3)
연령	65~69세	11( 4.2)
	70~74세	42(15.8)
	75~79세	66(24.9)
	80~84세	70(26.4)
	85~89세	51(19.2)
90세 이상	25( 9.4)	
학력	무학	99(37.4)
	초등졸	87(32.8)
	중졸	37(14.0)
	고졸	27(10.2)
	초대졸이상	15( 5.7)
종교 유무	유	235(89.1)
	무	29(10.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24( 9.1)
	건강하다	43(16.2)
	그저그렇다	57(21.5)
	나쁘다	82(30.9)
매우 나쁘다	59(22.3)	
시설 입소기간	1년 미만	26( 9.8)
	1년 이상~3년 미만	58(21.9)
	3년 이상~6년 미만	75(28.3)
	6년 이상~10년 미만	42(15.8)
	10년 이상	64(24.2)

한편 대부분의 노인(약 89%)이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의 무료양로시설의 5개 중 2개를 제외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재단이 설립하거나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약 25%이었으며,

과반수가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들의 평균 시설입소기간은 약 6년으로 1년 미만의 노인이 약 10% 정도였으며, 약 24%가 시설에 입소한 지 10년이 넘는 상태이었다.

##### 2. 일반적 경향

###### 1) 여가프로그램 운영실태

현재 서울시 무료양로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무료양로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은 시설마다 그 종류와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행사위주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주 1회 이상으로 실시되어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만을 분석하였다.

<표 3> 서울시 무료양로시설의 여가프로그램

시설	여가프로그램(주 1회 이상)
A시설	종이접기, 미술치료, 비디오시청, 생활체조, 산책, 알까기, 미니볼링, 종교적 모임
B시설	종이접기, 원예치료, 서예교실, 댄스, 노래교실, 구연동화, 단전호흡, 비디오시청
C시설	음악치료, 건강교실, 무용, 미술, 게이트볼, 이야기교실, 비디오시청, 종교적 모임
D시설	실버요가, 미술치료, 음악치료, 종이접기, 건강체조, 비디오시청, 노래부르기, 붓글씨, 종교적 모임
E시설	종이접기, 미술치료, 노래부르기, 음악치료, 국민체조, 비디오시청, 종교적 모임

5개 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을 영역별로 분류해보면 건강(생활체조, 산책 등)·종교(예배, 종교관련 집단강좌 등)·취미(종이접기, 미술, 서예, 원예, 구연동화 등)·오락(비디오시청, 댄스, 노래 등)·운동(게이트볼, 미니볼링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건강·종교·취미·오락영역의 여가프로그램은 5개 시설 모두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신체적으로 적극적인 여가활동인 운동관련 여가프로그램은 A시설이 미니볼링, C시설이 게이트볼을 실시하고 있을 뿐 다른 시설에서는 운동관련 여가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A시설과 C시설도 운동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며 장소 및 설비의 제한으로 인해 미니볼링과 게이트볼에 참여하는 노인은 10명 내외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종교적 모임은 B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이 시설들이 종교단체와 관련되어 있거나 노인들의 대부분이 종교를 갖고 있어서 시설에서 이를 배려해 하루 생활시간 중 예배시간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였다.

2)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들이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적 동기는 5점 만점에 3.11점, 외적 동기는 3.81점으로 심리적, 신체적인 도움이 되는 본질적 이유보다는 증거집단적이고 여가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시간때우기식의 비자율적인 이유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의 일반적 경향  
n=265

변 인(5점 만점)	M(SD)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	3.11(1.14)
여가프로그램 참여 외적동기	3.81(1.07)

이와 같은 결과는 시설의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표면적으로 여가프로그램의 참여율로 그 여가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보다 그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평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고 해도 시설측에서 프로그램 참석에 대한 출석부에 대한 체크 등을 통해 입소 노인들을 비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여가생활만족도

전체적으로 여가생활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49점으로 중간수준 정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여가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n=265

여가생활만족도 문항(4점 만점)	M(SD)
여가시간이나 회수에 대한 만족	2.26(.97)
용돈에 대한 만족	2.34(.96)
장소나 시설에 대한 만족	3.05(.81)
동료에 대한 만족	2.62(.91)
여가활동 자체의 흥미정도	2.43(1.00)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정도	2.60(1.00)
여가생활에 대한 보람 정도	2.25(.96)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2.34(.96)
여가생활만족도 전체	2.49(.71)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3.05점), 여가활동의 충분성을 나타내는 시간정도(2.26점)나 여가생활에 대한 보람 정도(2.25점)는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입소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여가생활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에서는 만족정도가 낮은 편이었지만, 현재 주거시설이 무료라는 점에서 여가관련 장소나 시설도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응답하면 고마움을 느낀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여가생활에 필요한 용돈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79세 이하 노인에게는 한달에 45,000원을,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50,000원을 보조하고 있다. 이는 현대 생활수준과 비교해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으로 특히 시설 밖의 유료의 여가프로그램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4) 시설동료 및 직원과의 관계정도

한편 시설내에서 항상 직·간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같은 방을 사용하는 노인들이나 다른 방의 노인들, 시설직원들과의 관계정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무료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시설내 동료나 직원과의 관계정도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이하로, 시설직원(3.02점)> 같은 방 동료(2.98점)> 다른 방 동료(2.6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설직원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숙식부터 모든 생활을 항상 함께 하는 노인동료들에 비해 시설직원들과는 일상적으로 사적인 것까지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안좋은 감정이 쌓이거나 다툼 일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시설동료 및 직원과의 관계정도  
n=265

변 인(5점 만점)	M(SD)
같은 방 동료와의 관계	2.98(1.03)
다른 방 동료와의 관계	2.65(1.04)
시설직원과의 관계	3.02(.81)

3.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의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동료 및 직원과의 관계정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 1)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lt;표 7&gt;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265

독립변수	종속변수	내적 동기			외적 동기		
		B	$\beta$	t	B	$\beta$	t
성별 <sup>a</sup>		-.419	-.171	-2.966*	.421	.184	2.719**
연령		-1.899E-02	-.111	-1.806	-5.111E-05	.000	-.004
학력		.138	.143	2.601*	-.117	-.130	-2.014*
종교유무 <sup>b</sup>		.365	.100	1.927	.154	.045	.743
주관적 건강상태		.340	.297	5.151***	-.292	-.273	-4.038***
같은방동료와의 관계		.209	.188	2.436*	3.438E-03	.003	.037
다른방동료와의 관계		.135	.123	1.699	-.211	-.205	-2.420*
시설직원과의 관계		.193	.137	1.984*	.161	.122	1.507
입소기간		1.687E-02	1.414	.159	-2.701E-03	-.013	-.207
상수			1.711			4.530	
F값			16.078***			3.933***	
R <sup>2</sup>			.362			.122	
D-W값			1.913			1.605	

\*p&lt;.05 \*\*p&lt;.01 \*\*\*p&lt;.001

dummy변수(a=여자기준; b=종교無기준)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에는 성별(p<.05), 학력(p<.05), 주관적 건강상태(p<.001), 방식구와의 관계(p<.05), 시설직원과의 관계(p<.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에 대한 영향력은 주관적 건강상태( $\beta=.297$ ), 같은 방 동료와의 관계( $\beta=.188$ ), 성별( $\beta=-.171$ ), 학력( $\beta=.143$ ), 시설직원과의 관계( $\beta=.137$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36.2%이다(표 7 참조). 즉 건강할수록, 같은 방 동료들과 관계가 좋을수록, 여자가 남자노인보다 더, 학력이 높을수록, 시설직원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참여동기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원형중(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입소 노인들이 여가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기보다는 시설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나 시설직원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내적 동기가 낮게 나타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남자노인, 그리고 학력이 낮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스스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 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2) 여가프로그램 참여 외적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여가프로그램 참여 외적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p<.01), 학력(p<.05), 주관적 건강상태(p<.001), 다른 방 동료들과의 관계(p<.05)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영향력은 주관적 건강상태( $\beta=-.273$ ), 다른 방 동료들과의 관계( $\beta=-.205$ ), 성별( $\beta=.184$ ), 학력( $\beta=-.130$ )의 순으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다른 방 동료들과의 관계정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이, 학력이 낮을수록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이상의 결과는 내적동기에 대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방향성이 정반대인 결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남자노인, 학력이 낮은 노인들은 시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그저 시간때우기나 시설단체활동이라는 의무감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를 비자율적인 외적 동기가 아닌 자율적인 내적 동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된다.

## 4.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여가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동료 및 직원과의 관계정도,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 여가프로그램 참여 외적동기의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성별(p<.001), 학력(p<.01), 주관



적 건강상태( $p<.05$ ), 같은 방 동료와의 관계( $p<.001$ ),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 $p<.001$ )가 여가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영향력은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 $\beta=.566$ ), 같은 방 동료와의 관계( $\beta=.271$ ), 성별( $\beta=-.169$ ), 학력( $\beta=-.121$ )의 순으로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61.1%이었다. 즉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가 높을수록, 같은 방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남자보다 여자노인이, 학력이 낮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내 여가프로그램은 개인별이 아닌 단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같은 방 동료가 여가를 함께 하는 동료가 되기 쉽다. 따라서 같은 방 동료와의 관계는 여가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가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O'Connor 등(1992)과 Vallerand 등(1989), Losier 등(1993)의 외국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보다는 어떠한 이유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했느냐가 여가생활만족도를 분석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기존의 학계의 의견을 입증한 결과로 입소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자와 학자들은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여가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김성연, 박미석(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홍성희(1998)와 한상덕(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아직까지 무료양로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무학이거나 학력이 낮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도가 낮거나 기대가 낮아 현재의 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연구가 요구된다.

<표 8>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265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가생활만족도		
		B	$\beta$	t
성별 <sup>a</sup>		-.258	-.169	-3.660***
연령		5.921E-04	.006	.115
학력		-7.210E-02	-.121	-2.759**
종교유무 <sup>b</sup>		1.005E-02	.004	.108
주관적 건강상태		8.723E-02	.123	2.558*
같은방동료와의 관계		.187	.271	4.428***
다른방동료와의 관계		-2.433E-02	-.036	-.622
시설직원과의 관계		-3.958E-02	-.045	-.823
입소기간		-4.354E-03	-.033	-.748
여가프로그램참여 내적동기		.351	.566	11.053***
여가프로그램참여 외적동기		-2.866E-02	-.043	-.990
상수			1.138	
F값			36.105***	
R <sup>2</sup>			.611	
D-W값			1.555	

\* $p<.05$  \*\* $p<.01$  \*\*\* $p<.001$   
dummy변수(a=여자기준; b=종교無기준)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대 고령화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양로시설 거주 노인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동기와 여가생활만족도 분석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 증진과 노인의 여가복지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관할의 5개 무료양로시설 입소 노인을 전수(全數)조사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5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은 건강(생활 체조, 산책 등)·종교(예배, 종교관련 집단강좌 등)·취미(종이 접기, 미술, 서예, 원예, 구연동화 등)·오락(비디오시청, 댄스, 노래 등)·운동(게이트볼, 미니볼링 등)영역으로 과거 선행연구들의 실태결과보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적극적인 여가활동인 운동관련 여가프로그램의 운영은 모든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신체적인 활동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 시키며, 여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이며, 이것은 노인의 복지를 증대시켜 노년의 삶의 질을 고양하게 한다(나항진, 2002). 특히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들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건강수준에 맞추어 이들이 흥미를 갖고 선용할 수 있는 신체적인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능성을 홍보하고 교육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들이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는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에 의해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율적이기보다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단체활동이라는 의무감에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관계자들은 시설평가를 대비해 입소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 참여율만을 높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시설에 대한 평가와 학계의 여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참여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여가생활만족도에서 입소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여가생활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에서는 만족정도가 낮은 편이었지만, 여가활동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평가를 대비해 보이기식으로 여가시설이나 장소를 구비하고 실제 여가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설의 장소나 설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여가생활에 필요한 용돈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설 밖의 더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이용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 상황에 대해서도 속고가 필요하다.

셋째, 건강할수록, 같은 방 동료들과 관계가 좋을수록, 여자

가 남자노인보다 더, 학력이 높을수록, 시설직원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다른 방 동료들과의 관계정도가 좋지 않을수록, 남자노인이, 학력이 낮을수록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입소 노인들이 여가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중용하기보다는 시설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나 시설직원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설에서는 입소 노인들끼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상담 등을 통해 그들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내적 동기는 낮고 외적 동기가 높게 나타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남자노인, 그리고 학력이 낮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서는 앉아서 손가락 운동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미술관련 프로그램, 남자노인들을 위해서 옥외에서 할 수 있는 신체적이고 활동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을 고민해볼 수 있다.

넷째,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가 높을수록, 같은 방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남자보다 여자노인이, 학력이 낮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 동료와의 관계정도가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인간간의 상호작용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로 시설에서는 노인들간의 친밀도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가프로그램 참여 내적동기가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입소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흥미로운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결과의 효과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보다는 어떠한 이유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했느냐가 여가생활만족도를 분석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기존의 학계의 의견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무료양로시설 뿐만 아니라 유료양로시설의 급증을 고려해볼 때 이제는 주거시설이 노인의 단순한 의식주 해결이 아닌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로 한단계 진전될 수 있도록 만족정도가 높은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료양로시설 거주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동기 및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설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접수일 : 2004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4년 10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1월 17일

#### 【참 고 문 헌】

- 곽현근(2002). 무료 노인 주거시설 입소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식(1996). 대도시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김성연·박미석(2000). 도시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67-84.
- 김성희, 이철원(2003). 도시근로자의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3), 391-400.
- 김수병(1992).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자(1996). 전라북도지역 무료양로원 노인들의 서비스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숙(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향진(2002).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8, 131-163.
- 문숙재·송혜림·김선희·이기영·김난도·김순미·박미석·조희금(1999). *공공가정경영*. 신정.
- 박미석(2002). 노년기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5), 133-146.
- 박용란(2000).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동기 및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 서인선·최윤희·조유향·차경미·최영희(1997). 양로시설 입소 노인의 생활시간과 생활실태. *한국노년학연구* 6, 19-31.
- 신갑호·문용(1999). 노인의 여가동기와 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모델. *한국체육학회지*, 38(2), 158-169.
- 원형중(1994). 여가활동 참여가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4(2), 90-104.
- 원형중(1998). 성인근로자의 여가활동 참여동기와 제약요인에 관한 기본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7(2), 369-386.
- 이성철(1996). 노인의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자(2001).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2). 저소득 계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의 원천과 유형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수·이용환·곽강욱(2000). 양로시설 입소노인의 행동과 심

- 리특성. 노인복지연구 2000 여름호, 149-167.
- 장숙아(1997). 사회적 지지가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순자(200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영(1994). 시설노인의 운동참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대봉(1990). 양로시설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시설평가단(2003). 노인복지시설 평가교육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상덕(2002). 노인의 여가실태와 여가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 633-649.
- 한혜원(2000). 노년기 여가참여와 삶의 질 인지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07-123.
- Beard, J. G., & Ragheb, M.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0-33.
- Beard, J. G., & Ragheb, M. G.(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2), 219-228.
- Campbell, A., Convers, P.E., & Rodgers, W.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utler, N. E.(1979). Age variation in the dimensionality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4, 78-90.
- Deci, E. L., & Ryan, R. M.(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Losier, G. F., & Bourque, P. E. & Vallerand, R. J.(1993). A motivational model of leisur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Psychology*, 127(2), 153-170.
- Manfredo, M. J., Driver, B. L., & Tarrant, M. A.(1996).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A meta-analysis of the recreation experience preference scal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3), 188-213.
- Neulinger, J.(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2nd E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O'Connor, B. P., & Vallerand, R. J.(1990). Religious motivation in the elderly: A French-Canadian replication and an extens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1), 53-59.
- O'Connor, B. P., Vallerand, R. J., & Hamel, M.(1992).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elderly individuals: Theory and assessment. Unpublished manuscript. Lakehead University.
- Ragheb, M. G., & Griffith, C. A.(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2), 295-306.
- Sneegas, J. J.(1986). Components of Life Satisfaction in Middle and Later Life Adults: Perceived Social Competence, Leisure Participation, and Lif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4), 246-258.
- Vallerand, R. J., & O'Connor, B. P.(1989). Motivation in the elderly: A theoretical framework and some promising findings. *Canadian Psychology*, 30(3), 538-550.